

유학생 미국 체류 4년 못 넘는다

국토안보부 추진, 전공-교육과정도 못 바뀌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의 미국 체류 기간을 고정형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진하면서, 미국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계는 이 규정이 확정될 경우 유학생 수가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7월 국제 유학생 입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인도 출신 유학생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유학생 체류 기간 '고정형' 전환

국토안보부는 8월 28일 발표한 규정안에서, F-1 학생비자와 J-1 교환방문비자의 '체류 신분 유효 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4년간의 고정 체류 기간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학위 과정을 진행 중이면 합법적 체류가 인정돼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무리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새 규정은 학업 기간과 무관하게 4년을 넘기면 체류 연장(EOS)을 신청해야 한다.

언어연수생의 경우 총 체류 기간이 24개월로 제한된다. 언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I비자도 체류 기간이 축소된다.

문제는 학위 과정의 평균 소요 기간이 이보다 길다는 점이다. 미국교육통계센터(NCES)에 따르면 학사 학위 취득까지 걸리는 중간값은 52개월(4.3년), 미국국립과학재단(NSF)에 따르면 박사 학위는 평균 5.7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유학생이 학위를 마치기도 전에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체류 중인 유학생들도 규정 발효 후 4년 이상은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체류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J-1 연구학자나 외국인 의사는 기존에 5~7년짜리 프로그램이 허용되더라도 규정 발효일로부터 4년이 지나면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학업·진로 선택 제한 강화

새 규정은 학생들의 학업 선택권도 제약한다. 규정안에 따르면 학부 수준의 F-1 학생은 첫 학년 동안에는 전공, 학위 수준, 혹은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학교 폐쇄, 자연 재해로 인한 장기간대면 수업 중단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규정이 확정되면 유학생은 학위 과정이나 OPT(졸업 후 선택적 실습), STEM OPT 연장이 끝난 날 또는 최대 4년 체류 기간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30일 안에 출국해야 한다.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로 간주돼 추후 재입국이 제한된다.

이번 규정은 고용주에도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 기존에 이민심사에서 과거 판정을 존중하던 '판단 존중 원칙'이 폐지돼,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매번 새롭게 입증해야 한다. 이는 기업과 학생 모두에게 행정 절차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가톨릭 학교 미사 중 난사 어린이 2명 사망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총격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한 남성이 미사 중이던 가톨릭 학교에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참극이 발생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7일 오전 애너운시에이션 가톨릭 학교에서 발생했다. 용의자는 소총, 산탄총, 권총으로 무장한 20대 남성으로, 학교 창문을 향해 수십 발을 발사했다. 이 과정에서 17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그중 14명이 어린이였다. 경찰은 희생된 어린이가 각각 8세와 10세였다고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위중한 상태다. 용의자는 스스로 총을 쏘 현장에서 숨졌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무고한 아이들과 예배 중인 사람들을 향한 의도적인 폭력 행위였다"며 "어린이들로 가득한 성당에 총을 쏜다는 그 잔혹함과 비겁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목격자는 "이 일이 아이들의 삶에 평생 상처로 남을 것"이라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제는 이런 일이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다.

국방부→전쟁부 명칭 변경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국방부를 과거 명칭인 전쟁부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명칭이 "너무 방어적"이라며, "우리는 방어적이기를 원하지만, 필요하다면 공격적이기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부 시절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믿을 수 없는 승리의 역사를 썼다"며 과거 명칭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냥 할 것"이라며, "만약 필요하다면 의회도 동의할 것이라 확신한다. 하지만 그조차 필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전쟁부라는 명칭을 버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안경비대, 태평양-카리브에서 불법마약 7만 파운드 이상 압수

연방 해안경비대가 올해 여름 태평양과 카리브 해상에서 7만5,000파운드 이상의 불법 마약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코카인이 6만1,740파운드, 마리화나가 1만4,400파운드였다. 이는 해안경비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발로, 시가 약 4억7,300만 달러에 달한다.

해안경비대는 국방부와 협력해 갈라파고스 제도(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연안,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 아루바 등지에서 마약 운반 선박 19척을 적발했다. 일부 선박은 해상초계기에 포착된 뒤 승선 검색팀이 나가 검문을 실시했다. 이번 작전으로 최소 34명의 마약 밀매 용의자가 체포됐지만, 전체 체포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숫자퍼즐 정답

7	9	2	3	5	4	8	1	6
1	3	5	8	9	6	2	4	7
4	6	8	7	1	2	3	5	9
5	7	6	9	2	8	4	3	1
2	8	1	6	4	3	7	9	5
3	4	9	5	7	1	6	8	2
6	5	3	1	8	7	9	2	4
8	1	4	2	6	9	5	7	3
9	2	7	4	3	5	1	6	8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